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2. 24(금)	
		작 성 · 문 의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보건정책팀장 박은경 사무관 김미경 (Tel. 044-200-2294)
24(목) 15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소아암 어린이들을 찾아 '따뜻한 사랑의 마음' 전달

-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찾아 소아암 어린이에 성탄선물 전달
 - 소아암 아동이 “건강한 미래 주역”으로 성장하도록 치료와 교육에 만전
 - 서울 명동에도 들려 ‘구세군 냄비에 성금 전달’하며 이웃사랑에 동참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월 24일(목), 국립암센터를 찾아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며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격려했다.
- 이번 방문은 연말과 성탄절임에도 병실에서 힘들게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고, 소아암 환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이날 ‘국립암센터’(원장 이강현)를 찾은 황 총리는 “소아암 아동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쓰는 병원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며 병원 종사자들을 격려했다.
- 황 총리는 “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환자의 치료성과가 크게 향상*되고는 있으나, 매년 1,500여명의 아동이 새로 소아암으로 진단되는 것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,
- * 5년 단위 생존율 : ('01~'05년, 71.6%) → ('06~'10년, 77.1%) → ('08~'12년, 79.9%)
- “소아암 아동은 장기간 입원과 치료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, 교육과 정서발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- 황 총리는 “정부는 소아암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, 병원학교 운영 등 교육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고가 약제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이어 황 총리는 소아암 아동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 입원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며 “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 치료 잘 받으면 건강하게 곧 퇴원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격려하는 한편,
 - 아픈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“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돌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”이라며 자녀의 빠른 완치를 기원하였다.
- 황 총리는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 내에 있는 병원학교도 찾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,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가면을 만드는 등 수업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,
 - 앞으로도 “소아암 아동들이 역경을 꺾어내고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, 가족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와 교육에 힘써 줄 것”을 병원 관계자에 당부했다.
- 한편, 국립암센터를 찾기 전에 서울 명동에 들러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직접 전달한 황 총리는 “성탄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곳곳에 따뜻한 온기와 이웃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에 동참하고자 왔다”고 밝히면서,
 - “나눔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, 올해도 사회 각계의 동참으로 슬로건인 ‘국민과 함께 더 큰 나눔으로’가 실현 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**일반 현황**

-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
- 설립일 : 2000. 3. 22.
- 직원수 : 1,126명(의사 269명)
- 병상수 : 567병상
- 시설 : 병원동(지상10층)·연구동(지상7층)·검진동(지상12층)·행정동(지상4층)

□ **소아암 병동 운영현황**

- 인 력 : 의사 4명, 간호사 9명
- 재원현황

(2015.12.15. 기준)

계	7세 미만	18세 미만	18세 이상*
23명	8명	10명	5명

* 18세 미만에 발병하여 계속 치료 중인 자

□ **병원학교 “밝은교실” 운영현황(‘06.3.3 개교)**

- 설립근거 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및 3조

* 병원학교 수업참여는 정규 학교수업 출석으로 인정

** 교육청에서 인력(교사 2명) 및 운영비(‘15년 11,367천원) 지원

- 관리운영 주체 : 고양 풍산초등학교

- 교사 2명(유아특수교사, 초등특수교사), 학생 10명(유아 6명, 초등생 4명)

* 정규 수업 이외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형식으로 음악교실, 공예교실, 놀이교실 등 재량활동도 진행(재능기부 교사 1명)

□ **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**

- 4인 기준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의 소아암 환자(18세 미만)에게 **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** 치료비 지원

* 지원자 수 : ('12년) 3,999명 → ('13) 4,010명 → ('14) 3,759명

□ **4대 중증질환(암, 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성질환) 보장성 강화**

- '13~'16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수 의료항목(진단·치료·약제)에 대해 **건강보험 적용 확대**('13.6월, 사회보장위원회)

* 고가항암제, 첨단 진료·치료법 등 총 178개 항목 신규 확대('15.11월 기준)

-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환자부담 : ('12)1조119억 → ('14)5,775억 → ('15)1,543억

□ **3대 비급여(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간병비) 부담 완화**

- **(선택진료비) 선택의사 지정 비율 축소**(병원별 80% → 67%, '15.9 시행)로 환자부담 연간 총 2,212억원 감소 예상

- **(상급병실료)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의 일반병상(4인실) 의무비율** (50% → 70%) 확대('15.9 시행)로 환자부담 연간 총 570억원 절감 예상

- **(간병비) 병원의 간호서비스에 간병 포함**(‘포괄간호서비스’), '16년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화

* 환자 부담(7일 기준) : ('12) 56만원 → ('15) 3만9천원

□ **개 요**

- 장기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

* 근거 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(순회교육 등)

- 병원학교는 **병원학교 자체 운영 형태***와 **교육청 소속 순회(파견)학급 형태****로 구분

* 병원자체 운영 : 병원에서 장소·인력 지원,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
(국립서울병원, 서울삼성병원 등 10개)

** 교육청 소속 순회(파견) 학급

: 병원에서 장소 제공, 교육청에서 인력 및 운영비 지원
(부산대병원, 충남대병원, 강원대병원 등 23개)

□ **이용 학생**

- 만성질환 치료로 **연간 수업 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유급이 우려되는 학생**

* '15.4월 현재 33개 학교, 월평균 680명 이용

□ **병원학교 운영**

- 특별교부금(교육부), 시도교육청 예산, 병원 예산으로 운영

* '15년 1,051백만원(특별교부금 672, 교육청 85, 병원예산 294)